

## ‘소중한 물’ 절약의 생활화가 필요하다

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 
서금택의원

### ‘소중한 물’ 절약의 생활화가 필요하다

-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, 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 
이춘희 시장님,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!
- 안녕하십니까 ?  
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.
- 먼저,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께  
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
- 어느새 결실의 계절, 가을에 들어서는 9월이 시작됐고,  
뜨거운 햇살과 농부의 땀방울을 밀거름 삼아  
곡식들은 알알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.
- 저는 오늘 이런 풍성한 결실을 위해 없어선 안 될  
소중한 자원인 ‘물’을 아끼고 지키는 일에  
이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-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,  
대부분 여름철에 집중해 비가 내리면서,  
이를 제대로 저장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,
-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물 자원량도 세계 153개국 가운데  
129위,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.

- 더욱이, 전 세계적 기상 이변이 지속되면, 머지않아 더 심각한 물 부족이 발생하고, 이로 인해 '물 기근'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
-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난 봄, 심각한 가뭄으로 농심(農心)을 애타게 하더니, 7월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져 손 쓸 틈도 없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,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
- 이런 상황에도, 우리는 여전히 물을 아끼고 활용하는 **치수(治水)의 중요성**을 인식하지 못하고, 물을 그저 '물로 보고, 물 쓰듯' 하고 있습니다.
- 계절별, 지역별로 종종 심각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**우리나라의 경우,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280리터** 가량인데 반해, 대표적 물 풍요국가 **영국은 하루 평균 1인당 사용수량이 150리터** 수준으로, 이 같은 사용량도 지속적인 절약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120리터 정도까지 줄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.
- 이제는 우리도 '보여주기 식' 일회성 행사나 구호가 아닌 **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과 물 절약 생활화가** 필요합니다.
-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, 지역 내 건축물 및 각종 시설의 절수설비 설치 확대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물 절약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한 『**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**』를 대표 발의코자 합니다.

- 각종 자료에 따르면, 전체 수돗물 사용량 가운데 **가정을 포함한 일상에서의 물 사용, 특히 화장실 변기와 샤워용 등으로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**
- 이렇게 물 사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, 절수효과도 크기 때문에, 『**수도법**』 등을 통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설치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, **설치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로 건축허가 및 준공단계에서 서류를 통해 이뤄지고, 이미 설치된 설비에 대한 실제 성능 확인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,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**
- 『수도법』에서는 절수형 양변기의 1회 사용 수량을 6리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, 제가 직접 세종시 관내에 설치된 절수형 설비의 사용수량을 확인한 결과, 허가된 사용량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, 본 의원은 **우리 세종시부터 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과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절수설비의 경우 반드시 실제 사용수량을 확인하고, 이미 설치된 절수설비도, 절수효과가 더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등 물 절약을 위해 선제적으로**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.
- 또한, 세종시 차원의 체계적 물 관리 정책 추진과 함께, **물 절약을 실천하는 시민과 공동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, 생활 속 물 절약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**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.

○ “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 밖에 없습니다.”

오늘부터라도 세종시민 모두가 물 절약에 앞장서는  
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 
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발언을 마치겠습니다.

○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2017. 9. 1.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서 금 태